존 케리 미 국무장관께 보내는 서한

참조: 국무부 선임 관료,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하원 외교위원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으로 운반하려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서한을 씁니다. 이 수송계획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비확산 및 안보 정책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송을 중지하기 위해 미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REVA(프랑스의 원전 회사)는 자국 내 제작된, 무기로 사용 가능한 900kg의 플루토늄이 포함된 20개의 혼합산화물(Mixed Oxide, MOX) 연료집합체를 4월 14일에 프랑스 셀부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영국 국적의 수송선 퍼시픽 이그렛트(Pacific Egret)나 퍼시픽 히어론(Pacific Heron) 중 하나에 적재할 것입니다. 이 수송은 일본 서부지역 타카하마에 위치한 원전부지의 항구로 출발할 것입니다.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첫 핵 물질 수송인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년간 일본 내에서 플루토늄 연료 수요와 그것의 사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1]](#footnote-1)
* 일본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무기로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고, 대량 비축하여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미국의 일본 플루토늄 프로그램 지원 정책은 동아시아에 진행중인 비확산 노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지 않고 반대로 훼방을 놓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2]](#footnote-2)
* 일본의 프로그램과 미국의 지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123)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플루토늄을 재처리 및 분리 추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장려할 것입니다.[[3]](#footnote-3)
* 이 수송의 영향은 한반도와 동해,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긴장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 또한 대한해협을 거치는 수송 보안 계획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footnote-4)

미국 국무부와 관련 기구들은 유럽에서 일본으로 플루토늄이 수송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검토하고 승인했지만, 우리는 아래의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 시기에 대한해협을 통해 핵무기 사용에 가능한 플루토늄을 수송한다는 것과 일본 내에서의 플루토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새로 지적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국은 최신 검토가 있을 때까지 수송 합의를 보류한다는 것을 일본과 프랑스에 알려야 합니다.
* 미국 국무부가 새로 발견한 위험 평가 결과를 알리고, 합의는 결국 보류되었다는 것을 미국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 이제껏 일본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데도 핵무기 사용에 가능한 플루토늄을 44,000kg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플루토늄에 대한 사용과 재처리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견해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의 사용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없애는데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로써, 이런 권고사항들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확산되는 핵 위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북한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에서의 플루토늄 확산에 대한 이슈는 확실히 국제적 주요 문제, 현안입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플루토늄 수송을 허락하는 것은, 위기를 야기하고, 북한에게 있어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핵 물질을 보유를 승인한 지난 수년간의 미국의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정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한반도에서만큼 더 분명히 나타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과 같이 핵 물질 재처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는 대한민국과 동해를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협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미국의 시도들은 일본에게 이런 정책을 권고하는 것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염려하는 시민사회 단체로써, 우리는 일년 전 플루토늄으로 야기될 위협을 경고했던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매우 핵심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우리 모두는 핵 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이 국가와 테러리스트를 핵 무기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 추출된 플루토늄을 방대한 양으로 축적하게 내버려 둘 수 없고, 테러리스트로부터 멀리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footnote-5)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긴장감을 해결할 기회를 앞서 대통령이 통렬하게 지적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고, 수송에 대한 새로운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향후 장소를 막론하고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하고 수송하며 저장하는 문제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일본>

그린액션

핵정보센터

<미국>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사회적책임을 위한 의사들

지구의 벗

프랭크 본 히펠 교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

<영국>

방사성 환경을 반대하는 컴브리아사람들

<한국>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해바라기, 탈핵법률가 모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April 12th 2013

Dear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cc: senior State Department staff, Senate Foreign Relations/House Foreign Affairs

We are writing to you to express our concern at plans by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Japan to resume shipments of weapons-usable plutonium to Japan. The shipment ha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U.S.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policies at a time when tensions in Northeast Asia are rising. Therefore we believe there is every need for U.S. consent for this shipment to be suspended.

We understand that during the week of April 14th a cargo of 20 plutonium Mixed Oxide (MOX) fuel assemblies, manufactured in France by AREVA and containing in excess of 900 kilograms of weapons-usable plutonium, will be loaded on to one of the UK- flagged armed freighters Pacific Egret or Pacific Heron, in the port of Cherbourg, France. The shipment will then depart for the nuclear reactor port at Takahama in western Japan.

Our concerns over this shipment, the first since the devastating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in March 2011, include the following:

* No demand for plutonium fuel in Japan[[6]](#footnote-6), no possibility for its use now, utility admits it is un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fuel to be transported will be used[[7]](#footnote-7);
* Japan continuing to acquire, stockpile and attempt to scale up its use of weapons-usable plutonium, including efforts to start-up and operate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 A flawed U.S. policy of supporting Japan's plutonium program which does not contribute to, but on the contrary distracts from stabilizing on-going non-proliferation efforts in East Asia;[[8]](#footnote-8)
* Japan's program and its U.S. support undermining on-going U.S. Republic of Korea (ROK)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123) negotiations, including encouraging ROK to seek reprocessing and separated plutonium;[[9]](#footnote-9)
* The impact of the shipment on exacerbating furthe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East Sea/Sea of Japa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nuclear progra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 Inadequate transport security plan, including for passage through the Korea Strait.[[10]](#footnote-10)

As the U.S. State Department and associated agencies review and sign off on the security plan for shipments of plutonium from Europe to Japan, we urge you to immediately undertake the following actions:

* conduct a new risk assessment on both the demand in Japan for such plutonium and the risks of shipping weapons-usable plutonium through the Korea Strait at this time;
* inform Japan and France that U.S. consent has been suspended pending an updated review;
* inform the U.S. Congress that the State Department is conducting a new risk assessment and that consent has been suspended; and finally,
* initiate a wide-ranging U.S. review of its policy concerning Japan's reprocessing and plutonium-use program, which has resulted in Japan acquiring stocks of over 44,000 kg of weapons-usable plutonium with no practical peaceful use; and,
* no amendment to ROK-U.S 123 Agreement permitting development of reprocessing or enrichment program by the Republic of Korea.

As organizations working to reduce and eliminate the threat from the commerce in and use of weapons-usable plutonium, we believe these recommendations, if adop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help to reduce escalating proliferation threats in East Asia. Given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DPRK to restart plutonium production at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the issue of plutonium proliferation in East Asia is clearly of major international concern. To allow the plutonium shipment to proceed at a time when tensions are escalating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only serve to stimulate the crisis and could be seen by North Korea as a provocative and confrontative act.

Long standing U.S. policy of approving Japan to acquire bomb material has led to policies that directly challenge U.S. efforts to reduce proliferation threats in East Asia. Nowhere more is this policy failure evident tha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U.S. attempts to have the DPRK return to its promise made by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e., no reprocessing or enrichment) could be directly undermined by U.S. policy applied to Japan, a short distance across the East Sea/Sea of Jap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sserting to have the same rights as Japan to reprocess.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cerne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we were very encouraged when a year ago President Obama warned of the threat posed by plutonium. He addressed the very core of the problem when he stated:

“We all know the problem: The very process that gives us nuclear energy can also put nations and terrorists within the reach of nuclear weapons. We simply can’t go on accumulating huge amounts of the very material, like separated plutonium, that we’re trying to keep away from terrorists."[[11]](#footnote-11)

The current tension in the region presents an opportunity to address what the President so poignantly stated above.

That is why we urge you to take immediate action and conduct a new risk assessment on this shipment, This will be an important step forward for reviewing the wider U.S. policy concerning commercial plutonium separation, transport, and stockpiling anywhere.

Sincerely,

Aileen Mioko Smith

Director Green Action

Kyoto, Japan

Hideyuki Ban

Co-Director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

Tokyo, Japan

Frank von Hippel

Professor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United States

Henry Sokolski

Executive Director of the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 (NPEC)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atherine Thomasson, MD

Executive Director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Martin Forwood

Cumbrians Opposed to a Radioactive Environment (CORE)

United Kingdom

Shaun Burnie

Director, Nuclear Campaigns

Friends of the Earth,

Washington DC, United States

Joint Action for Nuclear Free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78 organization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

Green Korea Unite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World Without Nuclear Power

Haja production school

Korean Teacher's organization for Ecological Education and Activity

Eco-Horizon Institute

GREEN WON-BUDDHISM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Womenlink Consumers's Co-operative Union

Energy Justice Actions

Worker's Solidarity All Together

iCOOP Consumer Co-operatives

Yeoung Gwang Women's Hot Line

Environment & Pollution Research Group

Hansalim Co-operative Federation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No Nukes Busan Citizen Commission

Korean Catholic Solidarity for the Creation Conservation

Eco Buddha

Energy Vision

No Nukes Samcheok Coalition

DURECOOP

Green party of Korea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rm-Education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Power Plants, Gyeongnam Citizen Action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more 47 organizations which don’t show as English name)

Sunflower, Kore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Power Plants

Seoul,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Seoul, Republic of Korea

**<서한 배경문>**

**일본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배경과 수송의 불필요성**

***일본은 플루토늄이 필요하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결과로 일본은 2012년 5월까지 남아있는 모든 원자로를 폐쇄했다. 이 원자로들을 재가동하기 위한 승인 절차는 2013년 7월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이 계획된 플루토늄 연료 수송은 일본 칸자이 전력회사 (KEPCO)가 운영하는 다카하마 유닛 3로 이동된다. 타카하마 원자력 발전소는 2015년 3월까지 끝내야 하는 츠나미 방호벽 완공을 포함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타카하마 3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공식 승인은 이르면 2015년 3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몇 개월이나 1년 혹은 그 이상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KEPCO가 이 플루토늄 연료를 최소 2~3년 간은 적재할 수 없다 그 원자로가 개정된 안전 수칙에 부합하거나 대중이 플루토늄 연료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냐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MOX 연료를 활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플루토늄을 수송한다는 일본과 프랑스의 계획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송로에 속하는 캐러비안 지대, 중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남태평양 부근의 나라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핵 연료 수송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플루토늄 연료는 원자로 부지에 적재될 것이고 무기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일본에 계속 쌓여간다는 것은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을 비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30년간 지속된 이 일본의 플루토늄 정책은 실패한 것이고, 결국 평화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핵무기 원료의 거대한 비축 프로그램으로 이끌었다.

최근 수송은 프랑스 원전 회사인 AREVA가 계획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일본과 원자력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인상을 주었다. 이는 원자력 안전과 비확산 문제의 검토에 예견된 사업을 얹는 전략에 이끌린 환상이다. AREVA의 행보를 돌이켜 보면 놀라울 것도 없다. 미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DOE)의 사바나 강 지대에서 진행된 AREVA의 MOX 프로젝트에 재정적, 기술적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12]](#footnote-12)

그러나 이 수송의 수신자인 KEPCO가 이 플루토늄 연료 수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프랑스로부터 압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13]](#footnote-13) AREVA의 국내 플루토늄 정책 실패[[14]](#footnote-14) 로 인해 57톤에 달하는 분리된 민간 플루토늄을 비축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15]](#footnote-15) 프랑스 라아그(La Hague)에 20개의 MOX 연료 집합체를 계속 저장하게 되는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된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정책***

잘 숙지하고 계시듯이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수십 년 간 지속된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이다. 200억 달러에 달하는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기술적 결함으로 전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플루토늄을 처리하고 분리하려는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은 Generation IV고속증식로를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몬주(Monju)원자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16]](#footnote-16)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에서 발생한 사용된 핵연료재처리와 분리된 플루토늄 MOX 연료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다. 1999년 9월 일본으로 향하는 플루토늄 연료의 첫 수송에서 고의적으로 조작된 품질 통제 안전 데이터를 일본 시민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화물의 반을 다시 영국으로 되돌린 일도 있었다.[[17]](#footnote-17)

MOX 화물의 나머지 반은 후쿠시마 원전 지대로 이동되었다.

후쿠시마 현의 지사뿐만 아니라 이 서한에 서명한 대다수의 시민 단체들[[18]](#footnote-18)은 안전을 위해서 이를 반대해 왔으며 [[19]](#footnote-19) 32개의 MOX 연료 집합체를 원자로에 비축하는 작업을 7년 간 지연시켰다.[[20]](#footnote-20) 2010년 8월~9월간 도쿄 전력회사(TEPCO)는 그 플루토늄 연료를 결국 후쿠시마 원자로에 비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중앙에 다른 연료와 함께 MOX 연료가 적재된 후 6개월이 지나 2011년 3월 11일, 두 대의 원자로가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용을 증명하기 보다 근본적인 실패의 결과로 일본은 결국 44톤[[21]](#footnote-21) 이 넘는 플루토늄 비축을 실행했고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들보다 가장 많은 양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은 중국보다 20배나 많은 상황이고 군사적/비군사적 인벤토리에 담긴 2미터 톤보다 적은 양이다.[[22]](#footnote-22)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최근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의 비축된 플루토늄의 사용을 위한 계획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일본은 평화적 도구일지 아닐지 정의도기 어려운 핵무기 사용에 가능한 플루토늄을 계획 축적할 것이다.[[23]](#footnote-23)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정책을 강하게 옹호하는 미국***

상업적인 핵연료 싸이클 내 플루토늄 사용을 반대하는 단체로서, 우리는 1988년 미국 정부가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의 진행을 승인한 결정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믿는다. 이 실수를 수정하기에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24]](#footnote-24) 일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는 2011년 3월 11일 비극적 사건의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나오토 칸 총리는 이런 정책과 반대되는 자세로 나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정책 변화를 지지하기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였다.[[25]](#footnote-25) 2012년 중반, 미 국무부는 핵분열 물질의 국제적 위협을 줄이기 보다는 일본이 플루토늄의 생산과 비축량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런 그릇된 정책에 대한 정당화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들다. 전략이던 상업적이던 혹은 두 가지 모두이건, 미국 정책은 핵 무기용으로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확산 위협과 안보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대항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책의 실패***

일본이 핵 물질을 보유하도록 권고한 다년간의 미국의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한반도에서만큼 더 분명히 나타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북한에게 핵무기 사용에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십 년의 미국의 노력은 일본에게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권고하는 것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조정하는 중대한 시기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올해 5월 안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26]](#footnote-26) 미국이 일본으로 플루토늄 수송을 승인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원자로 연료를 재처리 하는 기술과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힘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7]](#footnote-27) 한국에서 평화목적이던 아닌 정책이건 간에 핵 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을 진전시키고 MOX연료 수송 제안을 승인한 미국에 의해서 그들의 위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28]](#footnote-28)

***대한해협을 포함한 수송로의 안보는 위험할 수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을 지난 수십 년간 반대해온 단체로서, 우리는 이런 수송에 관한 감소된 안전대책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핵 무기 사용 가능한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법들 중 최소 무장한 해군의 안내를 받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이 정책은 영구, 프랑스와 일본의 로비로 1990년 이후에 중단됐다.[[29]](#footnote-29) 오늘날 수백만의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해군의 대포와 무장경관이 탑승한 상선에 의해 운반된다. 이런 물질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전 대책은 매우 부적당하다고 믿으며, 우리는 2013년 4월 14일과 19일 사이에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수송계획에 특히 염려하는 바이다.

여러 증거들이 들어나면서 핵 수송과 관련된 출발 시점[[30]](#footnote-30), 경로 그리고 정확한 장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 [[31]](#footnote-31) 플루토늄 수송의 도착지는 서해/일본해 타카하마에 있는 원자력 항구이다. 이 수송은 북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서해/일본해를 통과할 것이다. 타카하마까지의 경로가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위험은 더 악화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과 이 지역에서 이 위기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기 전까지 배송에 관한 미국의 승인은 잠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과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시기에 일본으로 핵무기 사용에 가능한 플루토늄의 수송 저지 입장을 의회에게 알려야 한다.

영문은 PDF 파일로 첨부

1. 일본 시설들이 분리, 추출된 플루토늄의 사용 계획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http://mainichi.jp/english/english/newsselect/news/20130326p2a00m0na006000c.html> [↑](#footnote-ref-1)
2. 이에 대한 배경은 링크된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Global/international/planet-2/report/2006/4/Proliferation-Korea-Japan.pdf> [↑](#footnote-ref-2)
3.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경우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3/03/29/10/0301000000AEN20130329007051315F.HTML> [↑](#footnote-ref-3)
4. 이에 대한 배경은 링크된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nci.org/k-m/mmi.htm> [↑](#footnote-ref-4)
5.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2/03/201203262737.html#axzz1qaFg16rG> [↑](#footnote-ref-5)
6. It was reported in March that Japanese utilities are unable to provide a plan for the use of their separated plutonium stocks, <http://mainichi.jp/english/english/newsselect/news/20130326p2a00m0na006000c.html> [↑](#footnote-ref-6)
7. It was reported in the Fukushima Shimbun on 22 March 2013 (article in Japanese) that Kepco states, “concerning loading of this fuel into the reactor, the decision regarding this will be made based upon the debate concerning restart and upon the determination by local authorities, and therefore, “we have not decided [this] at this point.”

 http://www.fukuishimbun.co.jp/localnews/nuclearpower/41190.html [↑](#footnote-ref-7)
8. For background, see,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Global/international/planet-2/report/2006/4/Proliferation-Korea-Japan.pdf> [↑](#footnote-ref-8)
9. The new President of the ROK recently called on the U.S. Congress to assist it in expanding its peaceful nuclear program. Park calls for U.S congressional support for Seoul's case in nuclear accord negotiations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3/03/29/10/0301000000AEN20130329007051315F.HTML> [↑](#footnote-ref-9)
10. See, <http://www.nci.org/k-m/mmi.htm> for background. [↑](#footnote-ref-10)
11. See,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2/03/201203262737.html#axzz1qaFg16rG> [↑](#footnote-ref-11)
12. <http://www.slideshare.net/MATRRorg/tom-clements-mox-plutonium-briefing-6292012> 그리고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0/costs-soar-almost-3-billion-at-plutonium-plant.html> [↑](#footnote-ref-12)
13.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3/21/national/takahama-mox-fuel-shipment-in-works/> [↑](#footnote-ref-13)
14. [http://www.npolicy.org/userfiles/image/Nuclear%20Power%20Made%20in%20France,%20A%20Model\_pdf.pdf](http://www.npolicy.org/userfiles/image/Nuclear%20Power%20Made%20in%20France%2C%20A%20Model_pdf.pdf) [↑](#footnote-ref-14)
15. <http://fissilematerials.org/> [↑](#footnote-ref-15)
16. <http://www.japantimes.co.jp/news/2012/02/22/national/hopes-fade-for-monjus-energy-dream-promise/#.UVpKMI7A420> [↑](#footnote-ref-16)
17. [↑](#footnote-ref-17)
18. <https://www.commondreams.org/newswire/2011/03/31-5> [↑](#footnote-ref-18)
19. <http://www.greenpeace.fr/stop-plutonium/dossiers/MOX_quality_annexe4.pdf> [↑](#footnote-ref-19)
20. <http://www.cnic.jp/english/newsletter/nit81/articles/fukushima.html> [↑](#footnote-ref-20)
21.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2012/infcirc549a1-15.pdf> [↑](#footnote-ref-21)
22. <http://fissilematerials.org/> [↑](#footnote-ref-22)
23. <http://mainichi.jp/english/english/newsselect/news/20130326p2a00m0na006000c.html> [↑](#footnote-ref-23)
24. <http://www.nci.org/p/pl-wm99.htm> [↑](#footnote-ref-24)
25. 다니엘 폰만 미 에너지성 부장관과 관련된 글을 참조하시오. <http://japandailypress.com/u-s-japan-meet-to-discuss-interest-in-fast-reactor-257319> [↑](#footnote-ref-25)
26. Se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578846.html> [↑](#footnote-ref-26)
27. See,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3/03/29/10/0301000000AEN20130329007051315F.HTML> [↑](#footnote-ref-27)
28. See, <http://www.nytimes.com/2013/03/18/opinion/no-nukes-on-the-korean-peninsula.html?_r=0> [↑](#footnote-ref-28)
29. See, <http://www.nci.org/k-m/mox11698.htm> [↑](#footnote-ref-29)
30. See, <http://energie-climat.greenpeace.fr/mox-areva-prevoit-un-nouveau-transport-vers-le-japon> [↑](#footnote-ref-30)
31. See, for example,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news/features/skippers-account-of-nuclear-f/> [↑](#footnote-ref-31)